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미국 경제]

- WSJ:5월 미 소비자 물가 4% 상승, 연간 비교 점차 둔화
- CNN Business News:미국인들, “2년만에 인플레 기대치 가장 낮다”

#### [미국 금융]

- Bloomberg:인플레 둔화 발표후 주식 상승세

#### [부동산]

- Bloomberg:뉴욕시 사무실 점유율 50% 돌파... 팬데믹 이래 처음
- WSJ:아파트 임대료 상승률 빠르게 감소... 오랫동안 세입자에 유리

#### [오일]

- WSJ:OPEC 자발적 감산으로 원유 생산량 크게 줄어
- Bloomberg:유가가 3개월래 최저치에서 상승... 중국 경기 부양책 강화 탓

#### [중국 경제]

- CNN Business: 중국 갑작스런 금리 인하 시행... 경제 회복세 둔화 상황에서

####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WSJ:미 직원들 불만 늘어났다
- CNBC:도요타, 차세대 전기자동차 배터리 계획 발표에 주사 5% 상승

####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정보

### [미국 경제]

#### WSJ: CPI Report Shows Inflation Has Been Cut in Half From Last Year's Peak

##### 5월 미 소비자 물가 4% 상승, 연간 비교 점차 둔화

- 5월 인플레가 작년 정점 때 보다 반 정도로 떨어졌다. 그러나 연준의 기대치보다는 여전히 훨씬 높은 수치다.
- 오늘 화요일 연방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5월 미 소비자 물가 지수가 작년 동월에 비해 4% 상승했다. 작년 피크였던 연 9.1%보다 떨어졌고, 지난 4월 연 4.9%보다도 감소했다.
- 연준 관리들은 이달 13일과 14일 FOMC를 개최해 이번에는 금리 인상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인플레가 회복되지 않을 경우 올 여름이나 가을에 따라 올릴 입장을 보이고 있다.
- 한편 핵심 물가지수도 5월에 연율 5.3%로 4월 연율 5.5%에서 줄어들었다. 이코노미스트들은 핵심 물가지수가 향후 인플레 예상에 더 나은 지표로 보고 있다. 여전히 높은 편인데 그 일부 이유는 주택 임대 가격이 계속 오르는 데 따른 것이다.

## WSJ기사

**CNN Business: Americans haven't been this optimistic about inflation in two years****미국인들, “2년만에 인플레이 기대치 가장 낮다”**

- 미국인들은 향후 몇 달 동안 인플레이션이 낮아질 것으로 낙관하고 있지만, 물가 인상과 재정 상황에 대한 향후 전망은 조금 더 어두운 것으로 나타났다.
-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어제 월요일에 발표한 새로운 설문조사 데이터에 따르면 소비자의 단기 인플레이션 기대치는 5월 들어서 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 구체적으로 응답자들은 강한 노동 시장과 가계의 수입과 지출 능력에 대해서는 더 낙관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소비자들은 자신들의 신용 얻기 능력과 전반적인 자신들의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는 덜 낙관적이라는 것.

CNN Business기사

**[미국 금융]****Bloomberg: Tech Drives Gains After CPI as Bond Yields Slide: Markets Wrap****인플레이 둔화 발표후에 주식 상승세**

- 오늘 수요일 소비자 물가지수가 둔화됐다는 발표가 나오자 주식이 상승세를 보였다. 연준이 이번달에 금리 상승을 멈출 것이라는 데 힘을 실어주고 있다.
- S&P 500 지수가 4일간연속 상승하고 나스닥 100 지수가 주요 벤치마크를 상회하는 등 기술주가 다시 한 번 증시 상승을 주도했다. 국채 2년물 수익률은 5bp 하락한 4.5%를 기록했고, 달러화도 하락했다.

Bloomberg 기사

**[부동산]****Bloomberg: New York Office Occupancy Breaks 50% for First Time Since Pandemic Hit****뉴욕시 사무실 점유율 50% 돌파... 팬데믹 이래 처음**

- 팬데믹으로 인해 지역 경제를 흔든 이후 지난주 뉴욕시 사무실 점유율이 50%를 넘어섰다.
- 보안회사Kastle Systems의 데이터에 따르면 6월 7일에 끝난 주간에 뉴욕 대도시 지역의 빌딩 점유율은 전주 대비 4.2% 포인트 늘어난, 팬데믹 이전 수준의 50.5%를 기록했다.

Bloomberg 기사

**WSJ: Renters Are About to Get the Upper Hand****아파트 임대료 상승률 빠르게 감소... 오랫동안 세입자에 유리**

- 아파트 임대료 상승률이 빠르게 줄면서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임대 시장이 세입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 임대 리스트와 부동산 데이터 회사의 6개 전국 임대 가격 측정 평균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12개월 동안 신규 임대 신청 임대료(new-lease asking rent)는 2% 미만으로 상승했다.
- 이는 1년전의 두자리 숫자 증가율보다 감소한 수치이며 최근 역사상 가장 큰 폭으로 둔화된 수치라는 것이다.

WSJ 기사

**[오일]****WSJ: OPEC Crude Production Slumps as Voluntary Cuts Bite****OPEC 자발적 감산으로 원유 생산량 크게 줄어**

- OPEC회원국들이 5월에 원유 시장을 타이트하게 하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일부 최대 산유국들이 당초 계획된 대로 급격하게 원유 생산을 줄였다.
- OPEC의 13 개 회원국의 생산량이 하루 464,000 배럴 줄어든 하루 2,807만 배럴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WSJ기사

**Bloomberg: Oil Rises From Three-Month Low as China Weighs Stimulus****유가가 3개월래 최저치에서 상승... 중국 경기 부양책 강화 탓**

- 중국의 경기 부양책에 힘입어 원유가가 상승하고 있다.
- 서부 텍사스 중질유 선물가는 지난 3개 세션동안 7% 이상 하락한 후에 배럴당 69달러 이상으로 상승했다.
- 글로벌 벤치마크인 브렌트유도 지난 2021년 12월 이후 최저 증가에서 반등했다.
- 한편 중국이 광범위한 경기 부양책을 검토하고 있고, 미국의 경우도 5월 인플레이가 둔화되면서 금리 인상이 중단되면서 위험 자산에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Bloomberg 기사

**[중국경제]****CNN Business: China makes surprise rate cut as economic recovery****loses steam****중국 갑작스런 금리 인하 시행... 경제 회복세 둔화 상황에서**

- 중국 중앙은행은 오늘 화요일 경제 성장 둔화를 막기 위해 주요 대출금리 중 하나를 깜짝 인하했다.
- 즉, 작년 8월 이후 처음으로 7일물 역레포 금리를 낮춤에 따라 인하됨에 따라 은행 시스템의 유동성이 증가하고 단기 대출이 더 저렴해질 것으로 보인다. . 중국 중국인민은행에 따르면 이자율은 2%에서 1.9%로 떨어질 예정이다.

CNN Business 기사

###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WSJ: First It Was Quiet Quitting, Now Workers Are Facing Off With Their Bosses

##### 미 직원들 불만 늘어났다

- 점점 더 많은 미국인이 직장에서 불만이 커지고 있다.
- 화요일에 발표된 Gallup의 조사에 따르면 근로자의 절반이 업무에 몰입하지 않고 최소한의 노력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에서의 참여와 열정을 나타내는 척도인 '직원 참여도'는 미국에서 2년 연속 감소했다. 또한, 업무에 몰입하지 않거나 자신의 요구가 충족되지 않는다고 불만을 품고 있는 직원들의 비율도 늘고 있다. 이러한 근로자들은 저임금과 장시간 근무에 불만을 품고 있거나 고용주에 대한 신뢰가 사라졌다는 것이다.
- 이는 대면 근무냐 원격 근무냐에 대한 지속적인 논쟁이 큰 이유 일 수 있다는 것이다.

WSJ 기사

#### CNBC: Toyota shares surge 5% after announcing plans for next-gen battery EVs

##### 도요타, 차세대 전기자동차 배터리 계획 발표에 주사 5% 상승

- 도요타의 BEV Factory로 이를 붙여진 생산 시설은 주행 거리 1천km 전기자동차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이 공장에서는 2026년부터 '차세대' 배터리를 탑재한 배터리 전기자동차 풀 라인업을 선보일 예정이다.
- 새로운 CEO인 Koji Sato가 일본자동차가 전기차로의 더욱 공격적인 행보를 보인 것이다.

CNBC 기사

### [보고서]

## 美정크본드 만기 사상 최저 수준..."유동성 경색되면 문제"

정크본드 평균 만기 5.18년...투자등급 채권은 11년

미국 투기등급 채권(정크본드)의 채무불이행(디폴트) 우려가 커지는 등의 이유로 이들 채권의 평균 만기가 사상 최저수준으로 짧아졌다고 블룸버그통신 등이 12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정크 본드의 평균 만기가 5.18년으로, 이는 블룸버그가 하이일드 기업지수를 추적하기 시작한 1987년 이후 가장 짧은 것이다. 이에 비해 투자등급 채권의 평균 만기는 11년이다.

헤지펀드 쉐크먼 캐피탈의 글로벌 전략가 밥 크리세프는 "이론적으로 짧아진 만기는 변동성이 줄어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만기가 지속해서 더 짧아지고 특히 유동성이 경색되면 (차환 발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크리세프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자본시장이 얼어붙으면서 기업들의 디폴트가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처럼 만기일이 짧아진 것은 정크 본드 발행시장의 전반적인 둔화와 단기어음에 대한 수요 증가 때문이라면서 시장에서는 금리 급등에 따른 리스크로 인해 채권 발행 대신 다른 자금조달 방안을 찾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블룸버그에 따르면 지난달 현재 정크본드 채권 규모는 최고치였던 2021년 10월보다 13% 감소한 1조3천800억 달러(약 1천757조 원)였다.

이와 함께 경기침체 가능성이 커지면서 기업 디폴트가 늘어날 것을 우려한 투자자들이 만기일을 당겨 달라고 요청한 것도 한 요인이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골드만삭스가 시장조사업체 피치북 LCD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미국 자금시장에서 발생한 채무 불이행은 18건, 210억 달러(약 26조7천억 원)로, 2021년과 지난해 전체 디폴트 규모를 합친 것보다 많았다고 파이낸셜 타임스(FT)는 전했다.

특히 지난달에만 3건, 78억 달러(약 9조9천억 원)의 디폴트가 발생했으며, 이는 3년 전 코로나19 위기가 극심했던 시기 이후 월별 최대 규모다.

## [국제 금융 시장 동향]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6월 FOMC 금리동결 기대 지속 등으로 위험자산 선호 강화  
주가 상승[+0.9%], 달러화강세[+0.1%], 금리 약보합[-0bp]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대형주 강세 지속되며 증가 기준 13개월래 최고치

유로 Stoxx600지수는 UBS의 Credit Suisse 인수 절차 마무리 소식에 0.2% 상승

[환율\*]: 달러화지수는 2년물 국채금리 하락(-2bp) 등으로 상승폭 축소

유로화 가치는 0.1% 상승, 엔화 가치는 0.1% 하락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둔화 예상 등이 반영

독일은 장기 녹색채권 발행 계획 등으로 1bp 상승

## [주요 경제관련 소식]

[미국] 연준 전 부의장, 향후 경기둔화 시기 중앙은행 정책 지원은 이전보다 약할 가능성

○ 클라리다 전 부의장은 공급측 충격 등으로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 안정을 유도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

○ 또한 양적완화에 따른 피로감이 조기에 나타날 수 있어 이전보다 중앙은행이 강력한 부양책을 내놓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

○ 골드만삭스의 데이빗 솔로몬 CEO는 미국의 고물가 장기화 및 이에 따른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

- 한편 PIMCO의 Andrew Balls는 향후 2년 동안 미국 달러화의 약세를 전망.

[유럽] 독일 경제장관, 경제 성장률은 금년보다 내년에 더욱 높아질 전망

- 하벡 장관은 성장률이 금년에 0.4%를 기록한 후 내년에는 통상적인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 1.6%~1.9%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

- 다만 정부는 4월에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1.8%→1.6%).

[중국] 중국, 온두라스와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기대. 일대일로 협력을 강화할 방침

- 시진핑 주석은 가능한 신속하게 온두라스와 자유무역협정을 맺기 원한다고 발언.
- 중국을 방문한 온두라스 시오마라 카스트로 대통령은 대만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중국과의 공식 외교를 시작.
- 한편 중국 상무부는 수입금지 기업 목록에 2개 기업을 추가 지정한 미국의 결정은 투명성과 근거가 부족하다고 비난.

KOCHAM | 460 Park Ave, New York, NY 10022

[Unsubscribe office@kocham.org](mailto:office@kocham.org)

[Constant Contact Data Notice](#)

Sent by office@kocham.org